

MUSIC

사소한 평론의 힘

유영희 | 작곡가, 음악평론가

자꾸 어깨가 처지고, 색이 바래가는 오늘날의 평론계를 바라보면서 정녕 평론의 힘은 어디로 간 것인가 반문해 본다. 흑과 백이 겨루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대치되며, 우리는 사소한 트집조차 자칫 '비평'이라는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해버릴 때가 많다. 물론 '비평'은 '평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정당한 '비평'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思惟)의 근거들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3월이면 고교 2학년이 되며, 문과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딸은 문학과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고, 소질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중략) 연극 배우, 의상디자이너, 문학 비평가, 플루트 연주자이며 작곡가의 삶 중의 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싶으나 현실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안정이 염려되네요. (중략)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예술평론을 하면서 안정성이 보장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이 신문방송, 언론, 홍보, 영상학과입니다. 제대로 진로를 찾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학부모가 진학 상담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내용 중 일부다.

평론가' 라는 직업의 단상

바야흐로 '평론가'가 자식에게 시키고 싶은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시절이 도래했나보다. 평론가에 관해 전혀 감피를 잡지 못하는 막연한 질문에 마음이 답답했던게 사실이지만 진학전문가는 꽤 적절한 답 글을 '전문가답게' 달아 놓았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 볼 때 평론가로서의 직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고 진로도 그리 넓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략) 그러나 예술분야에서 활동하지 않고 이 쪽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전공을 통해 관련 업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넓히고 자주 참여하는 방법을 가져야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론 이외에 관련된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활동해야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일상과 정보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평론'이라는 말들이 부쩍 많이(사소하게) 쓰이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전문분야의 지면(地面)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평론들을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검색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글로

평가되는 세계에서 평론가들의 화려한 '글밭'은 이 직업의 본질과는 몹시 떨어진 가상의 외모를 상상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평론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자녀의 직업으로 고려하기에 이른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평론 - 비평이란

'평론'의 사전적 어의를 찾아보면 '따짐, 또는 그 글', '주로 예술 작품의 좋고 나쁨이나 가치 따위를 과해쳐 따짐, 또는 그 글'이라 되어 있다. 이는 지나치게 간추린 해설로, 그 본질이 훼손되거나 곡해 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충분치 않다. 좀 더 자세한 어의를 살펴보자. '평론'이라 함은 미적(美的) 경험에 풍부한 이에 의해 '가치평가'와 '비평'이라는 두 가지 목적 하에 존재하는 행위이다. 달리 말하자면 작품의 완성도를 논하는 의미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며, '가치판단'을 입증하는 이유를 찾는 것을 '비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평'의 정확한 의미는 '연주가 좋지 않다', '저 작품은 완성도가 떨어진다' 등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오히려 '왜 저런 해석을 보이고 있을까', 혹은 '연주의 실패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처럼 의문을 가지는데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비평'은 누구라도 인식하고 있는 이미 주어진 가치판단에 대한 역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先驗)된 가치판단(미적 경험)에 근거해 지금의 예술적 활동이 얼마나 보편 타당한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 또 고찰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위협하고 독단적인 것인가를 알기에 '비평'의 기준은 실로 애매한 개인의 '기호(嗜好)'일 수 있다. '기호'의 '기준'은 상식에 기초한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이는 예술의 행



작곡가 미요, 오네게르, 프랑크, 뒤레, 오리, 타유페르로 구성된 '프랑스 6인조'

위가 발생할 때 그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술사적 맥락이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론가의 소임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리 사회적으로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견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만으로 평가된 예술 활동은 '취미활동' 그 이상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취미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쟁도 없다'라는 라틴어의 경구(警句)가 있을 만큼 취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관대하지만 전문적 분야, 즉 예술가에 의한 예술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반드시 주관적인 견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를 피로할 때의 평론가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있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견디기 어려운 '비판'의 시각

"평론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군. 가서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내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 않은가." 지휘자 줄리니와 함께 호로비츠가 만년에 녹음한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no.23 A장조>의 녹음 현장이 수록된 영상물에서 호로비츠가 녹음 도중의 휴식시간을 이용해 제작진에게 건넨 말이다. 현장에는

예술가에 의한 예술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반드시 주관적인 견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를 피로할 때의 평론가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있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독일의 그라모폰사(社)에서 엄선한 비평가들이 삼삼오오 그와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고, 호로비츠는 '아직 손가락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있었다. 가까스로 이루어진 회견장에서도 그는 "상대가 무어라 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의 의견일 뿐이죠"라고 일축(一蹴)해 버린다. 하지만 호로비츠 역시 비평에 신경 쓰는 속내를 감추기는 어려웠나보다. 연주를 마친 피아니스트는 무의식중에 "오늘 연주를 신문에서 좋게 평가했다던데……"라는 말을 남기고 무대를 떠난다.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를 때까지
이 저녁 안개 속을
한번 헤쳐가 볼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너는 보았니?
아니다, 너에게는 너만의 세계가 있는 것이겠지
너 또한 시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겠지
버림받은 어린시절, 그 상처 같은 것
슬픔 또는 허무 같은 것
안녕! 잘 자라, 아가야

시를 평론한다는 사람들에게
- 류시화 -
안녕! 내 혼의 무게로 쓰여진 이 시들을 이해하려면
너 또한 네 혼의 무게로 잠 못 이루어야지
어디, 나와 함께
이 낮은 저녁 안개 속을 지나갈까?
손잡고서
그러나 조심하거라
저 나뭇가지 위에 무서운 검은 새가 있어
너의 눈을 공격할까
두려우니
이곳은 시인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별레들이 내 시집의 네 귀퉁이를 갉아먹고
나는 너의 두꺼운 안경이 무서워
아, 무서워
신발을 내던지고 모래언덕 너머로 달아나는데
너는 어느 별에서 왔길래 그토록
어려운 단어들을 가방 속에 넣고 있니?
머리가 아프겠구나
머리를 식힐 겸
우리 그 별의 이야기를 동무삼아

어떤 예술가가 평론의 떨떠름한 펜 끝을 인정하고 싶을까만은 시인 류시화는 매우 직접적으로 평론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아마 그의 경고(警告) 대상은 그의 작품을 '비평' 하는 이들이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것이라 추측해 본다. 실로 근거 희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은 예술가들의 적개심을 사기에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견뎌내야만 할 '비평'의 목소리마저 적대 한다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론가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은 다른 예술가 역시 마찬가지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평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평론가들의 캐릭터를 오페라 한 귀퉁이에 삽입시켜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톨스토이 등의 몇몇 사상가들은 모든 비평적인 기도를 거부하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에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것은 이들 만이 아니다. 그 어느 예술가가 비평의 도마 위에 올라가길 두려워하지 않을까. 필자의 경우에도 작품이 연주되어 처음 비평의 매서운 칼날을 접했을 때는 분노와 수궁하는 마음이 꼭 반반이었다. 평론가가 연습의 상황, 연주자들 개인의 문제, 그리고 지휘자의 작품 해석의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

숨에 못을 박았다는 억지스런 자기합리화와 더불어 허술함을 들켜버린 비밀스런 수치감 또한 상당했다.

결국 어떤 상황이던 내가 선보인 작품은 여하의 상황을 막론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음을 불편한 마음으로나마 깨우쳐야 했던 것이다. 대상 없는 분노는 본디 내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어렵사리 깨우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조목조목 '분해' 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수많은 다른 예술가들처럼 아마도 영원히 익숙해질 수 없을지 모르겠다. 톨스토이의 '설명되어야 할 무엇이 없는 작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작품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직 자발적이고 진정한 관심뿐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작자(作者) 한 사람만의 '자기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취미생활'과 달리 한 시대의 예술적 맥을 잇는 의미에서의 순수예술이라면 적어도 미적자아가 개발되고 훈련되어진 이들, 곧 평론가에 의한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비평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거론된 '평론'의 사전적 어의 하나인 '따짐'이라는 단어를 상기해 보자. 우리말 어휘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일순 주위를 경계케 하지만, 이는 결코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물론 연주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판단한다면 장점 또한 놓치지 않을 것임에 예의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평론인가 후기인가

독자 중에는 '평론가들에게는 도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심중문답(心中問答)을 하는 이가 적지 않으리라. 왜 아니겠는가. 근자에 이르러 '평론'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충족을 저버리고 있는 평론가들도 적은 수가 아니다. 앞서 언급된 평론의 필요 요건들은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연주회의 평론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의 보편적인 해설과 더불어 매우 등글려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찝막한 멘트가 곁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신인의 경우 그 연주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유망주고 기대주로 변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더 완곡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으나, '따짐'이 없는 평론은 '작품해설'이나 '연주 후기'에 다르지 않다.

실제로 가장 많은 연주회의 유형중 하나가 '귀국 독주회'인데, 이 주인공들의 몇몇의 연주는 '고급스런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화려한 드레스와 집안어른들이 태반인 객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의 해석이나 연습에 게을리 한 것이 역력한 연주는 정녕 그들의 그릇을 확인하러 온 소수의 청중에게는 화가 날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로지 음악 한 길만을 위해 젊음의 자유를 반납하고 연주에 매진한 이들과 같은 평가를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해 마지않는다는 찬사를 덧붙이고 있는 평론 아닌 평론도 허다하다. 평론가들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일은 어색한 칭찬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협하는' 평론가들을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우리의 저널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연주 평을 잡지사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굵직한 거장들의 연주일 경우와 두 번째로 잡지사와 연관이 있는 연주자, 즉 해당 잡지사에서 공연 기획을 맡았거나 광고물을 신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잘(?) 써줄 것을 잡지사가 강력히 원한다. 심지어 연주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 관한 변명도 대신 해주고, 연주자가 평을 원치 않을 경우 이미 완성된 원고를 신지

우리의 삶을 짊어주는 아픔이 있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음악 평론가의 막중한 임무이다. 사회적 장치들에 이끌려 갈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을 정리하면서 예술가들의 갈 길을 닦는 것이 평론가의 의무이다.



발라키레프, 큐이, 무소르그스키, 립스키코르사코프, 보로딘의 러시아 5인조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그 잡지사나 계속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국내에서 전업 평론가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평론가가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시쳇말로 '투잡족(two job族)' 이거나 적은 원고료로는 생계가 위태로운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세상에 음악평론가는 당신 아니고도 많다'는 태도가 소심한 평론가들을 타협하게 하는 것이다.

평론가인가 매니아인가

그렇다. 음악평론가가 어디 이름 알려진 몇몇 이들 뿐이겠는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자칭 타칭 평론을 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개중에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매우 해박한 지식을 피로하는 이들도 있고, 신랄한 비판의식을 날카로운 필체로 선보이는 이들도 있다. 이미 평론 동호회가 여럿 결성되어 있으며, 평론가 양성학원에 대한 홍보물도 종종 눈에 띈다. 음악의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도 문학적인 재치를 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술미학과 철학에 입각한 정연한 논리의 소유자들도 있다. 또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의 치열한 몸싸움을 이기고 살아남은 이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평론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답은 평론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단정(斷

定)일 뿐이리라. 경계선상의 이들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평론가의 기본 중의 기본 요건인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견해'의 적절한 융통성과 더불어 하나 더, '따짐'에 따르는 전문성에 기초한 '모색'과 방향성의 '제시'가 이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지면(紙面)은 그곳 아니고도 많다'는 배짱 역시 추가되어야 할 옷치 못할 조건이다. 비 음악인이면서 음악과 음악가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을 가졌다면 당신은 매니아로 분류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평론(가)의 힘 - 연주를 듣는 귀, 미래를 여는 혀

개인적으로 무용평론가 송중건 씨의 글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의 글을 처음 접한 것은 모 대학의 게시판에서의 일이다. 예의 신랄한 글이 게시판에 오르기 무섭게 댓 글에 댓 글로 반박이 줄을 이었다. 공연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둘도 없을 '독설가'로 비취질 테였지만, 그의 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 '비평'들이 그득했다. 단순히 문장오만 따지자면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송중건이 지적한 항목들은 무용계의 발전을 위한 그야말로 갈급한 외침으로까지 들렸다. 홈페이지에 실린 다른 글 <무용 예술의 비평적 조망>에는 '무용 공연장의 현실', '창의력 부재', '무용 교육의 부실', '무용학 연구의 부실현황', '무용협회의 문제점' 등 무용인이라면 귀를 막고 싶은 이야기들뿐이다.

음악계라고 이와 다르랴. 우리의 삶을 짊어주는 아픔이 있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또한 음악 평론가의 막중한 임무이다. 구태의연한 사회적 장치들에 이끌려 갈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을 정리하면서 예술가들의 갈 길을 닦는 것이 평론가의 할 일인 것이다. 작곡가 슈만은 「음악신보」라는 평론지를

창간해 날카로운 평론들을 써내면서 새로운 음악가들을 세상에 소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이들이 아직 청년이었던 쇼팽과 브람스였다. 작곡가 미요, 오네게르, 프랑크, 뒤레, 오릭, 타우페르로 구성된 '프랑스 6인조' 역시 작품에 관련된 어떤 일관성보다는 평론가의 글의 힘에 의해 프랑스의 근대음악을 대표하는 거대한 힘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발라키레프, 큐이, 무소르그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보로딘의 '러시아 5인조' 역시 평론가들에 힘입어 탄생하게 된다. 이들 팀에는 아예 음악평론가인 스타소프가 전속으로 붙어 있기도 했다. 음악에 있어서는 드뷔시 등으로 대표되는 '인상주의'라는 명칭 역시 미술평론가 로저 프라이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로 인해 인상주의의 특징이 규정되고, 미술에서 시작한 인상주의는 음악과 문학 등 인근 장르에까지 그 영향력을 펼쳐 나가게 된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러나 정녕 사소한 평론의 힘

'평론가'는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부류이고, '전문가'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던데?' 라고 말하는 부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평론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명제가 전제되어 있다. 또, 자신의 연주를 혹독히 비평한 평론가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쳐보시오"라고 말한 피아니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으며 마

음이 처연해졌던 기억도 있다. 이 피아니스트는 평론가가 평론의 전문가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작품과 연주의 행위에 당연히 따라야 할 '비평'의 질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어느 분야에서나 필요한 비평의 쓴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는 심리를 모르는 비는 아니나 어쩔 수 없다면 평론을, 비평을 한 번 이겨내 보는 건 어떨까. 자꾸 어깨가 처지고, 색이 바래 가는 오늘날의 평론계를 바라보면서 정녕 평론의 힘은 어디로 간 것인가 반문도 해본다. 스스로도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날이 바짝 서게 칼을 갈고 자신을 연마해 나간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창조적인 견제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평론가들에게 보내는 시선에는 '동조(同調)' 보다는 '반박(反駁)'이 단연 많다. 정당성을 가진 '반박' 보다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상받으려는 '반박'이 난무하며, 또 그 반대의 '반박'이 또 새로운 반박을 낳는다. 흑과 백이 겨루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대치되며, 우리는 사소한 트집조차 자칫 '비평'이라는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해버릴 때가 많다. 물론 '비평'은 '평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정당한 '비평'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思惟)의 근거들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어야 할 것이다.